

“한·일 젊은 세대들 토론하다 보면 이해도 깊어지죠”

“함께 토론하다 보면 상호 이해도 깊어지죠.”



▲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현대한국학연구센터장

서울대와 도쿄대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‘도쿄대-서울대 학생 토론회’를 이끈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현대한국학연구센터장은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를 통한 한·일관계 개선을 강조했다.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‘도쿄대-서울대 학생 토론회’는 일본 도쿄대에서 양 대학 학부·대학원생 60여명이 ‘한·일의 미래와 청년 교류’를 주제로 일본어·한국어·영어 그룹으로 나뉘어 이뤄졌다. ‘한류 붐의 동향’ 등 가벼운 주제부터 ‘위안부 동상을 둘러싼 한·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’ 같은 무거운 주제까지 다뤘다. 기미야 교수는 “영토나 위안부 문제 등 어려운 주제여서 걱정했지만 학생들이 자국을 대표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냉정히 토론했다”고 분위기를 전했다.

‘도쿄대-서울대 학생 토론회’는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. 서울대와 도쿄대는 지난해 10월 ‘서울대-도쿄대 연석회의’에서 각 캠퍼스 내에 상호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4월 도쿄대에 ‘서울대 사무소’ 개소식을 여는 등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.

기미야 교수는 “서울대와 도쿄대의 학생들이 함께 앉아 같은 주제로 논의하는 기회가 좀처럼 없다. 참가 학생들 모두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은다”면서 “앞으로도 매년 개최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@seoul.co.kr

| 기사일자 : 2014-08-02 |

Copyright ©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.